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남미연, 30년 역사를 기록하다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이 공동 창작한 '민족해방운동사' (1989·왼쪽) 박승희 열사 영결식 걸개그림(1991)



'걸개그림'은 한국민중미술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르다. 대학가에서 제작한 대형 걸개그림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5·18 진상규명, 남북통일, 민주화의 외침, 평화 관련 아젠다 등 그림 속 주제는 민주사회를 갈망하는 격렬한 '발언'이었다.

지역 민중미술사(史)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이하 남미연)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월미술을 포함한 민중미술 전반에 관한 부분은 광주민미술 등을 통해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지금까지 다소 소외됐던 '남미연'의 활동사황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아카이빙 작업의 결과물은 오는 12월(1일-1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전시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추석 처음 나왔다. 이후 1기 남미연 의장을 맡았던 기세홍(미술교사)씨를 비롯해 김병하(2기·일러스트 작가), 최성(3기·미술교사), 오영아(4기·의장권한대행·작가)씨 등이 준비모임을 꾸리고 자료들을 수집해왔다.

영민해방 1988-2021

1988년 결성, 다양한 활동 걸개그림 등 아카이빙 작업 12월 5·18기록관서 전시회

이번 기획에는 남미연에서 활동했던 여러 미술패중 조선태 '개광쇠', 전남대 '마당'과 '신바람' (미술대생으로 구성), 호남대 '매', 광주교육대 '숫타' 등이 참여했다.

1988년 결성된 남미연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988년 조선태 이돈명 총장 취임식 관련 대형 걸개그림, 1989년 이철규 열사 영결식 걸개그림, 1989년 임수경 평양축전-민족해방운동사, 1991년 박승희 열사 영결식 그림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광주의 이야기를 전국으로 알

려왔고, 선전·홍보 투쟁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에 준비한 아카이브전은 남미연이 결성된 1988년과 2021년 현재가 호응하며 다양한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남미연 의장단의 인터뷰와 함께 각 동아리의 활동과 역사,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특히 여전히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또 농사, 사업, 노동운동 등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도 자신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해 내용을 예정이다.

전시 후에는 아카이빙 자료와 작품, 전시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후 도록을 제작해 미술사(史)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조선태 '개광쇠' 출신인 서동환(광주아트가이드 대표) 대표는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30년이 지났지만 남미연의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내거나, 학술적으로 기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며 "우리 스스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 과거의 자료를 모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의미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도예가 정기봉 명장, 서암전통문화대상

상금 3000만원...26일 시상식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 화천그룹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20일 제11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로 해남청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남도 공예명장 도예가 정기봉(사진)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화재청장과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이경무씨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해 왔다.

수상자 정 씨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지며 향후 활동에 대한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26일 화천기공(주)에서 간소하게 진행된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한국화, 국악,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이다. 첫째 수상자인 악기장(匠) 이춘봉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화가 박문중·박종석 작가, 거문고 연주자 유소희, 윤진철·주소연 명장, 한국무용가 서영·공진희 씨들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 정기봉씨는 해남군 황산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과 개인전 개최를 바탕으로 3대째 가업을 이어가며 해남청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특히 무균열 태도를 이용, 작품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해남 청정자 및 절화 청정자 연주용 장고를 재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



고 있으며 해남 청정자의 특성 분석 및 재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남 청정자의 도자사를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또 영호남 도자기 교류를 이끌어 공예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했으며, 지역 대학교에서 전통 도예 부문 후학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창작활동과 이론 및 실기를 더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환 화천 창업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관심을 계승하고 전승 발전시켜 예향에 걸맞는 호남지역 전통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화천그룹이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 그리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학술및연구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낭만위로'...25일, 김원종의 달거리 온라인 공연

평화콘서트 '빵 만드는 공연 김원종의 달거리' (이하 '김원종의 달거리') 공연이 25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이달 공연의 주제는 '가을 2021'이며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시와 노래 등 낭만적인 예술을 통해 위로와 위안을 선사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작품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샌드아트메이킹 작가 주홍,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노래로 대중을 만나고 있는 김원종과 느티나무 밴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사진〉가 출연해 가을이 선물하는 색의 향연을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 소재로 요리를 활용하는 '인어의 노래' 김옥중 시인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한국 최초의 K-1 격투기선수, 요리사, 시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김 시인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김원종의 달거리공연은 유튜브 채널(김원종의 달거리)과 페이스북('김원종의 달거리'), 김원종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삭온스크린 '지젤'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화면으로 공연을 즐기는 '삭온스크린(Sac On Screen)' 이번 공연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지젤'을 상연한다. 이번 영상은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지젤'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총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은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이 알브레히트의 배신에 오열하며 광란으로 치닫는 비극적 이야기를, 2막은 죽어서도 연인을 지키려는 지젤의 사랑을 그린다. 상영 시간 100분.

관람은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며 입장료 무료. 예약은 전화(062-670-7933)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마지막 상영은 11월 23일 클래식 연주회 '노부스 파르렛' 작품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70-79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 달, 산, 강, 나무, 매화...기호화된 자연

신호재 개인전, 11월13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새로운 조형미로 풀어낸 산하.' 신호재 작가 개인전이 오는 11월13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린다.

'Rumin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신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구상으로 단순화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자연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한 재현 대신 달과 산, 강, 나무 등을 자신의 개성이 담긴 기호로 재해석해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비구상 느낌의 작품은 관람자만의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해 흥미롭다.

작품에서는 자유로운 붓질이 눈에 띈다. 강하고 대담한 붓질의 흔적과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조형요소로 삼고 있어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매, 난, 국, 죽 사군자를 치는 듯한 호흡이 느껴지고 오방색 원색의 붓질은 활발한 기운을 전한다.

빨강, 파랑, 노랑 등 작가의 호흡을 담아내는 화려한 원색은 작품에 화사함을 부여하며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리듬감과 울동감이 어우러져 다양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전시작 중 '루미네이션'은 300호 대작으로



'Rumination'

'일월오봉도'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신 작가는 전남대 서양화과와 조선대학교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31회의 초대 및 개인전과 50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미술 에브리, 한국미협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 신동우 화백 '풍운아 홍길동' 블랙 에디션 특별판

비영리 사단법인 올재는 고전 발간 100만 권 돌파를 기념해 고(故) 신동우 화백의 만화 '풍운아 홍길동'을 블랙 에디션 특별판으로 펴내다고 20일 밝혔다.

'풍운아 홍길동'은 허균의 홍길동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소년조선일보에 1300여 회에 걸쳐 실렸다.

책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인터넷 교보문고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23일부터는 전국 교보문고 영업점에서 권당 2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별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됐으며 홍길동의 탄생부터 역적을 물리치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올재는 이번 도서 출간을 기념해 신동우 화백의 작품과 영상을 담은 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확한 전시 내용과 일정은 올재 홈페이지와 SNS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40년

국제보청기